

■ 민선 5기 단체장에 듣는다

박병종 고흥군수

“우주항공 도시 기반 마련 박차”



박병종 고흥군수는 민선 5기 고 풍발전 4대 전략으로 ▲진환경 도시 ▲건강휴양 도시 ▲우주항공 도시 ▲인구 10만의 자족경제 도시 건설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등 7대 핵심공약을 중심으로 큰 틀에서 군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군수는 “고흥 조선타운과 동강 농공단지·고흥산업형 특화단지 등 각종 산업단지 조기 마무리와 기업 입주를 통해 ‘말로만 하는 경제 살리기’가 아닌 ‘눈으로 보여주는 경제살리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주 클러스터 등 2019년까지 14개 사업 추진

“휴양·역사·체험시설 관광객 500만 시대 열 것”

나로우주센터로 대변되는 우주 항공 연관산업도 ▲국가비행 종합 시험센터 유치 ▲로켓개발 연구센터 건립 ▲경향항공 생산업체 유치 등 ‘우주항공 수도’로의 변신을 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산업연구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고흥 우주 항공 클러스터’는 14개 사업이 2019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박군수는 정부의 국가비전이기도 한 녹색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고흥군 일원에 ‘해조류 바이오

에탄을 사업’과 금산면 일원에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비롯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고흥그린 솔라마을’ 조성 등 ‘친환경 녹색 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첨정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살린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구조 개선 등 생산자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생산에서 유통을 접목시킨 고흥 유통업 활성화, 지역특산물인 조영마늘 특화작물 육성, 수산물 브랜드화 추진 등 세부사업도 추진 한다.

어르신과 장애인·아동·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확대 등 사회복지에는 면주거나 늦출 수 없는 핵심 정책이다.

경로식당 예산확대·군립 추모 공원 조성·마을경로당 시설 현대화, 공동생활관 확대설치 등을 보건과 복지분야 주요 사업이다.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녹동 신항 개발·거금도 연륙화 등 지역 인프라의 중심이 될 각종 국책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군수는 “우주해양 리조트 특구, 신세계 리조트, 고흥 씨월드 조성 등 고흥 만의 맛과 빛이 살아있는 관광특구를 조성하겠다”며 “휴양과 역사, 체험시설을 갖춰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호국·문화공원 조성, 고흥 미(美)·경(景) 관광벨트 특구 조성·전국 최고의 테마형 우주항공 축제 개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 군청 신청사내 타카소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도 민선 5기의 역점 과제 중 하나다.

박군수는 “이제 육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어떤 문제, 어떤 경쟁력도 결국에는 인재 육성이 해법인 만큼 이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며 “현재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행동으로 실천하느냐에 따라 고흥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계곡·휴양림...

광양으로 오세요

피서철 마케팅 나서

광양시가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백운산 4대 계곡과 자연휴양림 등 관내 피서지 흥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양시는 관광객 맞이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교통·환경·상거래·시설물 정비·보건위생 등에 완벽한 수용태세를 갖추는 한편 포켓맵 관광안내지도 2만부와 관광책자를 고속도로 휴게소와 여행사·터미널·역 등에 배부해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도 호텔과 산장·음식점소마다 손님맞이 준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매년 광양지역에서 인기를 끄는 피서지는 광양 백운산 계곡과 자연휴양림, 도선국사 테마마을 등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2011년 광안~일본간 카페리 화로 개설과 2012년 이순신 대교 개통 및 여수 엑스포 등이 순조롭게 개최되면 적어도 하루 1만명 정도가 광양시를 찾을 것으로 전망돼 단계별 관광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첨수기자

광양 성호 1차 임대아파트 1360 세대

분양 전환 앞두고 분양가 분쟁

광양 성호 1차 아파트 1360여 세대 임차인들이 분양가 협상을 난항을 겪으며 광양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분양전환을 앞둔 광양 성호 1차 아파트 임차인들은 대표회의(대표 김상기)를 구성해 시행사인 성호건설과 분양가 협상을 진행했으나 분양가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차인들은 임대아파트 대행사 층이 지난해부터 480세대를 매입해 ‘전전세’를 확대해 가고 있으나 시공사인 성호건설과 시청이 뒷짐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 대행사 끼어들어 가격 협상 난항

임주민들 “광양시 중재 나서라” 농성



광양 성호 1차아파트 임차인들이 지난 8일 광양시청 민원실에서 광양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하고 있다.

성호 1차 임차인들은 지난달부터 광양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 8일에는 임차인 300여 명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기 위해 한꺼번에 광양시청에 진입하며 이를 제지하는 시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성호 1차 임차인들은 “임대 대행사가 성호건설이 제시한 분양가에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 현 임차인들의 분양가 협상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23평형은 감정평가액 4235만 원·성호건설 4300만원·임차인 4050만원, 26평형은 감정평가액 5600만 원·성호건설 5300만원·임차인 430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임주민들은 “임대 대행사가 지난 해부터 분양의사가 없는 아파트를 마구잡이로 매입, 전전세로 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차인 대표회의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를 열어 성호아파트 분쟁에 대한 협의나 분야가 조정에 광양시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조만간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전전세 전수조사와 보증보험 가입을 성호건설에 권고하겠다”며 “시장원리에 따라 조정되는게 원칙이나 양측 입장조율에 시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순천시 과수 유통센터 건립

127억원 투입 선별장·저장고 등 갖춰



전망된다.

순천시와 순천연합조합 공동사업 법인은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순천미인’과 거점APC 광역브랜드인 ‘하누리네’를 집중 홍보하고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일관된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경관계획은 지난 2006년 수립된 경관계획을 기반으로 2007년 경관법 제정과 지난해 6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해 지난 5월 전남도 승인을 받아 최종 완성됐다.

이번 경관계획은 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22개 단지 95.52㎢에 대한 권역별 경관형성 계획과 이중 18개 단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광양만권 도시경관 ‘자연과 인간’ 조화

경제자유구역 청사진

광양만권 도시경관이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개발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최종만)은 최근 도시경관의 효율적인 관리지침이 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경관계획은 지난 2006년 수립된 경관계획을 기반으로 2007년 경관법 제정과 지난해 6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해 지난 5월 전남도 승인을 받아 최종 완성됐다.

이번 경관계획은 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22개 단지 95.52㎢에 대한 권역별 경관형성 계획과 이중 18개 단

지 67.476㎢의 단지별 공공부분과 민간부분별 건축물의 배치·형태·야간 경관·옥외 광고물·조경식재·기타 가로 시설물 등에 관한 경관관리 세부 지침·경관계획 운영방안과 경관위원회 구성 등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지구별 경관형성 계획을 살펴보면 광양지구는 항만을 바탕으로 배후 습지와 해안선을 연계한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율촌지구는 바다 조망권과 송도와 장도를 연결하는 워터프런트 가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신덕지구는 향토·생태단지와 외국인 생활권 중심의 국제문화지구 단지가 세워지며, 화양지구는 이국적인 향토 단지가 조성된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구례 지리산 일원 자생 야생차

신품종 차 육종재료 가치 높다

났다.

반면 ▲마산면 황전리(화엄사) ▲광의면 방광리(천온사) ▲토지면 내동리(왕시루봉) 일대 등 구례지역 3곳의 자생차 애생차의 경우 이들 유동물질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카테킨의 경우 10.6%·10.34%·10.55%로 각각 나타났으며, 탄닌 함량도 천온사 8.28%·왕시리봉 8.22% 등으로 다른 지역보다 모두 높았다.

조사결과 38곳 자생차 애생차의 평균 카테킨 및 탄닌 함량은 각각 8.40%·7.03% 등으로 나타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동신대 ~ 나주 I.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 확장 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믿음 공인중개사
T. 971-4911 H.011-627-0876

(첨단 세종문고 건너 쌍동이 빌딩 1층)

첨단지구

상가 일대 : 60m 대로변 2.3층 450평(분할 가능)

[권장업종 : 병원, 사무실, 학원 기타]

첨단지역 변화가이며 1층에 옷매장들이 형성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많아 병원, 학원, 사무실용도로 적합함
450평(조립, 제조 회사 가능) 주차대수 30대

■ 공장 : 하남공단, 평동공단, 첨단산단 매매, 임대 전문, 매매, 임대 다수 보유하고 있음

■ 첨단 : 인근지역
진곡, 일곡, 동아면, 남면, 진원면, 대치, 수복면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생산, 자연녹지 있음)

■ 첨단지구 : 상업지역토지, 모텔부지, 상가건물 모텔, 무인텔, 매도(다수보유)

■ 첨단지구 : 상가임대, 음식점, 음악회, 라스 토랑(다수보유), 1층변화기 ; (옷매장 약 60평 일대)

첨단지역에서 오픈 전통있는 저희 업소에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천동 e-편한세상

선착순 특별분양(할인 프리미엄 적용)

<총 1096세대>

분양률 95% 이상

입주 ■ 760세대 이상

30%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저에너지 아파트

111㎡(구, 33평) 로얄층 / 164㎡(구, 49평) 로얄층

191㎡(구, 58평) 로얄층 다수 보유

142㎡(구, 43평) 로얄층 / 로얄층

▶ 112동 1002호 ▶ 113동 1004호

▶ 112동 1102호 ▶ 113동 1204호

▶ 112동 1201호